"전북농촌유학, 만족도 높다"

학생·학부모들 100명 중에 94명이 응답

현재 84명 참여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유학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만족도가 매우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전북농촌유학을 운영, 현재 84명이 참여해 지난해 27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지난 8월 유학생 학부모 51명, 재학생 학부모 75명, 유학생 19명, 재학생 52명 등 총 19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94.1%에 달했다.

유학생 학부모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 94.2% △학교생활 만족도 96.1% △지인들에게 추천 의사 92.1% △재참여 의사 92.1%로 집계됐다.

만족 이유로는 △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적 안정 22.0% △다양한 프로그램 20.0% △친구·선생님과 교류 증가 15.0% 등을 들었다.

유학생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 84.2% △학교생활 만족도 84.2% △교우 만족도 78.9% △친구들에게 추천할 의향 78.9%로 집계됐으며, 농촌유학을 선택한 이유로는 △부모님의 농촌유학 추천 41.9%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서 16.1%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12.9% 등을 뽑았다.

재학생 학부모의 경우 농촌유학을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답한 비율이 77.3%, 학생 수 증가로 학교가 활성화됐다(44.0%), 우리 아이가 교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졌다(41.3%) 등을 들었다.

재학생 역시 새로운 친구와 지내는 생활이 만족한다는 답변이 75.0%에 달했으며,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졌다(52.6%), 새로운 친구들과 서로 잘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17.1%) 등을 들어 농촌유학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유학경비 지원이 삭감될 경우 '상관없이 연장한다' 29.4%, '종료하고 원적교로 복귀한다' 25.5%로 조사됐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작은학교를 살리고 농산어촌 지역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농촌유학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전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북농촌유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농촌유학으로 작은 학교를 지킴으로써 농촌 마을 소멸 극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농촌유학 가족들이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전북대 환경공학과, 2회 연속 선정

산업계 부합 교육과정 운영 등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전공주임 장현민)는 교육부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실시한 '2023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환경분야에서 2회 연속 최우수학과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 개선 및 산업계와 대학 간 소통 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전국 22개 대학 33개 학과를 대상으로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설계(25%),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운영(40%),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운영성과(35%) 등을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공학과는 산업계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산학자문위원회를 통한 교과목 개편, 교내 전공진로설계와 연계한 학과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빅데이터와 기후변화 분야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교과목을 개편해 운영하고 있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및 졸업생 초청 특강, 기업탐방 현장실습, 찾아가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과 전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장현민 전공주임은 "공학교육인증제 및 다양한 정부지원 교육 사업을 통해 환경공학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향후 환경공학과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환경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교육재정 낭비 막고 주요사업 차질없이 추진"

도교육청, 내년 보통교부금 14% 감소 예측

법정·의무 지출 제외 사업비 집행 재검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재정 낭비를 막고 주요 정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국세가 54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올해 전북교육청 보통교부금도 5,800억원 감소가 예상되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법정·의무 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 재검토를 통해 2023년에 계획된 교육과정,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내년에도 경기 회복세 둔화로 보통교부금이 5,628억원(14%)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학생중심 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며 "집행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재검토를 통해 축소·폐지하는 등 철저한 예산 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이노비즈협회 전북 원광대와 협약 체결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이하 '협회', 회장 임동욱)는 원광대학교(이하 '원광대', 총장 박성태)와 전라북도 산업체와 청년 간 미스매칭 해소 와 일자리 확대 및 산학연협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양 기관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협력으로 청년취업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신규 사업의 공동 기획 및 제안 △전문인력 양성·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발굴을 위한 정보교류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교육대학교가 지난 13~14일 개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 이장호 군산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등교육의 현재와 미래 방향성 공유 계기

전주교대, 개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3~14일 이틀간 개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스웨덴, 호주, 싱가포르, 미국 등 5개국 교육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참석, '학생중심 초등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 행사는 오프라인과 Zoom 플랫폼을 활용한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박병춘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서거석 교육감과 김관영 도지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날에는 Sun-Joon Hwang(前) 스웨덴 국가교육청 교육정책평가과장)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송은정(동국대학교 AI융합교육 교수), 이혁규(청주교육대학교 총장), Pasi Sahlberg(펠버른 대학교 교육학 교수)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두 번째 날에는 유정수(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박휴용(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Woon Chia(난양공업대학교 학장), Paul Kim(스탠포드대학교 교육학 교수)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전주교육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초등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각국 교육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수업혁신 및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기계·자동차부품 설계 인력 양성 매진

우석대 i-CAD 교육사업단, 전북도 주관 산·학·관 커플링 13년 연속 선정… 240여명 전문인력 배출

우석대학교 i-CAD 교육사업단은 1억 5,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전공과 전기전자공학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화전략 취업캠프와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CAD·CAE 교육, CAD·3D 프린팅 경진대회, 자격증반 운영 등의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 주관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13년 연속 수행하고 있는 i-CAD 교육사업단은 현재까지 240여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또한 참여기업에 '대형 풍력터빈 블레이드의 스파캡 섬유배향탐상을 위한 NDE Polar Scan 기법' 등 다수의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임광희 i-CAD 교육사업단장은 "우리 학생들이 매년 전북지역 우수기업체로 진출하고 있어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더스트리 4.0에 기반 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교류 및 협력 활동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i-CAD 교육사업단은 오는 11월 10일 산·학·관 공동현장 세미나를 개최, 그간 경과보고와 함께 교육성과 및 작품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전교조 전북지부, 교권조례 개정 촉구 서명결과 발표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조례개정 촉구 서명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문제행동 학생 분리 등 학교장 책임을 명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부터 도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문제행동 학생 분리 주체를 학교장으로 명시하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전개, 이에 10월 13일까지 총 1,951명의 교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 모두 481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교권조례에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분리 주체를 학교장으로, 분리 장소를 교장실로 명시하는 데 동의하시나요라는 문항에 99.4%(476명)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분리 주체(학교장)와 분리 장소(교장실)가 명시되는데 동의하시나요라는 문항에서도 99.6%(477명)가 찬성했다고 했다.

전북지부는 "교권조례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에 앞장서고, 나아가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야 할 책임은 전북교육청에게 있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각종 대책과 학칙 개정안에 학교장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오늘부터 직업계고 고입 진로상담 운영

내달 17일까지 대면·유선 병행… 선취업 후학습 등 정보 제공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부터 한달 간 직업계고 고입 진로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학년도 고입 입학전형 모집일정에 맞춰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직업계고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진로 선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상담은 도교육청 7층 취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대면 또는 전화로도 진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에는 2023년 직업계고 홍보지원단 소속 교사 및 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사들이 직접 참여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중학생이나 학부모는 사전에 취업지원센터(1555-2019)로 전화해 상담 일정을 잡으면 된다. 대면상담은 오후 4시~8시까지며, 전화상담은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상담을 통해 직업계고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선취업 후학습 제도, 직업계고 특전, 계열별 및 학교별 교육과정 등 직업계고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소질 및 적성을 고려한 고입 진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면서 "직업계고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로상담을 통해 직업계고의 선택 만족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등, 새만금 이차전지 인력양성 협약

국립군산대학교는 군장대학교, 원광대학교, 호원대학교,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새만금개발청과 상호 협력을 통한 이차전지 인력양성 및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해 16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 간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해 각 기관의 발전과 새만금 이차전지 인력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군산대를 포함한 4개 대학은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해 추진하고,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는 협약 기관 간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회원사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새만금개발청은 기업-대학 등 유관기관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대 등 5개 대학 LINC3.0, 바이오 분야 ICC 사업 협약

전북대 LINC3.0사업단 바이오헬스케어ICC(센터장 권대규)는 5개 대학 LINC3.0사업단 바이오 특화 ICC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대를 비롯해 조선대, 광주대, 동신대, 전남대 LINC3.0사업단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이들 바이오 특화 ICC는 산학연 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동 프로그램의 기획과 공유를 위한 협업을 통해 대학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속적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대규 센터장은 "5개 대학 간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호남권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